

디자인과 4차 산업혁명... 25만명 '미래들' 체험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4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23일 폐막한다. 전시에는 모두 25만명이 다녀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다양한 전시 콘텐츠도 호평을 받았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디자인비엔날레 46일 대장정 마무리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4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3일 폐막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4차 산업 혁명'을 화두 삼아 '미래들(FUTURES)'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의적절한 주제와 전시 콘텐츠로 흥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모았다.

특히 기존의 디자인 비엔날레가 갖고 있던 문화적인 관점과 더불어 '산업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미래의 창업, 미래 일자리, 생활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을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낸 디자인의 역할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우선 관람객이 대폭 늘어나며 흥행을 이끌었다. 46일간 전시장을 다녀간 관람객은 약 25만여명. 지난 2015년 행사의 관객 10만 7000여명보다 113% 늘어난 것으로 행사 기간이 16일 길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60여일간 진행됐던 2013년 행사의 관람객 수는 21만명 수준이었다.

인하대, 영남대, 부산 동서대 등 단체관람객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으며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다양한 계층이 전시장을 찾았다. 관람객 중 단체 관람 비중은 약 40% 수준이었으며 특히 길었던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모여들면서 흥행에 불을 붙였다.

관람객 2015년보다 2배 이상 늘어

시의적절한 주제·전시 콘텐츠 호평

기업 13곳 3000만 달러 계약·MOU

'미래'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 우려를 각양각색으로 풀어낸 전시 콘텐츠도 눈길을 끌었다.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신기술의 향연을 보여주는 최첨단 작품과 함께 친환경, 공존, 나눔, 배려 등 '인간 중심' 디자인까지 함께 선보이며 '디자인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프닝 격인 '오래된 미래'에서는 미래를 꿈꾸었던 과거의 '연대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인상적이었으며 '미래를 디자인하자', '미래를 창업하자' 등 4개의 본전시는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는 각 색선마다 흥미로움을 느끼는 대상이 달라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 미래 모빌리티 비전, 자율주행, 에코라이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면서 '참여형 비엔날레'의 모습도 보였으며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4차 미디어 아트'전도 눈길을 끌었다.

작가들의 완성작을 보여주지 보다는 '과정'(Process)에

방점을 둔 작품들이 많았던 이번 전시는 관객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렸던 부분이다. 디자인의 가치를 차분히 분석하며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는 흥미로운 전시였던 데 반해 일부 관객들에게는 다이나믹한 볼거리가 부족해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다.

특히 '미래를 창업하자'를 주제로 진행된 본전시 3의 경우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했으며 스타트업과 3D 프린팅에 대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보다는 다소 밋밋한 전시를 연출, 아쉬움이 남았다.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확대한 이번 비엔날레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존 비엔날레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역 우수 제품 전시,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자인 마켓 등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지'가 눈길을 끌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는 지역 13개 기업이 3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과 MOU를 체결했지만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과 연결된 특화된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폐막식은 오후 6시30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1층 거시 기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식 광주시경제 부시장, 박유복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장동훈 총감독, 도슨트,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향의 가을'

'그리움이 머무는 곳, 고향'... 정정숙씨 첫번째 개인전

27일까지 화이트 스페이스

정정숙씨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퇴직하자마자 바로 꿈을 현실로 옮긴 정씨의 첫번째 개인전이 오는 27일까지 화이트 스페이스(광주시 동구 충장로 유생촌 3층)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그리움이 머무는 곳, 고향'이다. 처음 붓을 잡은 후부터 가장 화폭에 담고 싶었던 게 많은 추억을

남겨 주었던, 어머니 품같은 고향이었다. 전시에서는 토란대를 다듬는 엄마와 토방에 웅크리고 앉은 개를 그린 '고향집 엄마', 초가집 지붕에 올라가 잘 익은 감을 따는 모습을 담은 '수확' 등 정겨운 고향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또 집 안팎에서 만나는 도라지꽃, 개나리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오리 가족, 닭 등도 화폭에 담았다. 문의 010-6431-52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흥 남포미술관 기획전 'Rhapsody'

11월 12일까지

설치·사진·조각

작가 3명 초대



▶강신호 작

전남 제1호 등록미술관인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이 설치, 사진, 조각이 어우러진 기획전을 준비했다.

11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Rhapsody'로 사진작가 강신호, 박성태와 설치작가 찰리를 초청했다.

올해 초 '꿀림의 섬, 금오도'를 발표해 주목을 받은 강신호 작가는 바다와 꽃, 달 등의 자연적 소재를 통해 절대적인 푸른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서정적으로 담아냈다. 슬픔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의 사진은 일반적인 풍경 사진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적이다.

지난 2014년 '우리안의 한센인-100년

만의 외출'전을 열었던 박성태 작가는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넘사인 '비린내'를 통해 민중들의 원초적인 삶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사진을 선보인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여수지역 어시장과 공판장을 중심으로 촬영한 작품들이다.

입씨어클링 작품을 제작해온 찰리 작가는 콘크리트와 먹을 이용한 '영혼 시리즈'와 폐목을 재활용해 조형화 한 '고도를 기다리며', 버려진 현수막을 이용한 설치 작업 '자본의 타널' 등 다양한 유형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1-832-00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

최인옥 네번째 사진전 31일까지 휴랑갤러리

최인옥 네번째 사진전이 오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지사 1층 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호수, 생명을 피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방죽' 풍경을 담았다. 겨울엔 얼음판이 돼 개구쟁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봄엔 개구리 세상, 매미 우는 여름을 지나 가을엔 잠자리들의 독차지 하는 '방죽'의 모습이다.

푸른 나무가 그대로 물 속에 비치며

또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봄날의 모습, 하얗고 붉은 다양한 연꽃이 인상적인 여름날의 방죽을 만난다. 또 붉은 단풍과 낙엽이 어우러진 가을날의 모습, 쾅한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겨울 풍경도 전시된다.

광주주향교회 담임목사이기도 한 최씨는 무등미술대전 추천작가이며 사진대전 및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50회 이상 수상했다. 문의 062-360-33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을 소리...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